

프레임으로 바라본 <도미설화>의 현대적 변용*

김 민 옥**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1) <도미설화>-백제 민중의 전복 |
| 2. 빈칸 채우기-대립적 서사 구조의
강화와 욕망의 삼각형 구조로의
변모 | 프레임
2) <아랑의 정조>-일제강점기의 민
족정신 프레임 |
| 3. 프레임을 통해 바라본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 | 3) 『몽유도원도』-1990년대 개인의
욕망 프레임 |
| |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이 글은 <도미설화>를 현대적으로 수용한 소설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와 최인호의 『몽유도원도』를 프레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서사구조를 파악해 설화의 구조적 확장과 변모과정을 살핀 후, 이를 통해 드러난 소설적 특성과 주제의식을 프레임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당대 민중의 시각을 작가가 어떻게 반영하고

* 이 연구는 2016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요교양대학 조교수

있는지 그 구체적 모습을 분석해 보았다.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프레임 이론을 적용한 이유는 프레임이 개인의 생각을 주도하는 해석과 판단의 지배적인 준거 틀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작품이 탄생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민중들의 시각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도미설화>의 빈칸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표층에 드러난 서사 구조의 특징을 살폈다. 그 결과 <도미설화>는 도미와 개루왕으로 대변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구조를, 『아랑의 정조』는 아랑과 개루왕의 대립과 도미와 개루왕의 대립을 강화하는 구조로, 『몽유도원도』는 꿈과 현실의 대립 구조를 기반으로, ‘미인, 여경, 아랑’을 ‘대상, 주체, 매개’로 연결한 욕망의 삼각 구조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미설화>는 그 구성에 상당한 ‘빈칸’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빈칸은 현대소설로의 변형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도미설화>의 소설화 작업은 본래의 설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재해석을 통해서 설화의 사실성을 ‘허구적 진실’이라는, 보다 사실적인 세계로 변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프레임을 통해 바라본 인물과 주체의식의 변모 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도미설화>는 백제 민중의 전복 프레임을, 『아랑의 정조』는 일제강점기의 절개 프레임을, 『몽유도원도』는 1990년대의 욕망 프레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미설화>는 창작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백제인의 가치관과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프레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 프레임을 통해 백제인들의 삶과 시대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민중들은 개루왕의 실정에 대한 여론을 구전되는 텍스트로 만들었으며 도미 부부가 백제를 떠나 고구려를 향했다는 공간 설정을 통해 백제 시대의 가고 고구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것이다.

『아랑의 정조』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요구되었던 민족정신의 발현이라는 프레임을 드러낸 작품이다. 박종화는 ‘아랑’의 매서움과 절개를 통해 딜레마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장을 마련했다고 보인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 민족에게 민족주의라는 프레임을 형성하여 다소나마 위로를 전하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의 장을 열어놓고자 하는 작가 정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몽유도원도』는 1990년대 개인의 욕망이 관통하는 프레임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인호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사회적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여 이를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여경이 보이는 욕망과 환상으로 재탄생시켰다. 꿈과 현실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여경의 모습은, 현실 속에서 살면서도 늘 이상적인 세계로의 탈주를 꿈꾸는 현대인의 욕망을 상징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미설화>는 백제인의 가치관과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프레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며, 『아랑의 정조』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정신을, 『몽유도원도』는 1990년대 거대담론이 사라진 시기에 개인의 욕망이 관통하는 당대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설화의 여백성과 변천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도미설화>는, 그것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작품을 창작한 주체의 가치와 시대의 프레임이 반영되어 사회·문화적 의미를 더욱 풍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도미 설화, 아랑의 정조, 몽유도원도, 프레임, 빈칸, 서사 구조, 대립 구조, 욕망의 삼각형 구조, 전복, 절개, 욕망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도미설화> 텍스트가 현대적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프레임 이론을 적용하여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도미설화>는 《삼국사기》¹⁾ 제48권 8에 실려 있는 기록인데, 단순한 서사적 기록물이라기보다는 그 문학과 여백성 때문에 시대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문학적 변모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특히, 《삼국사기》 제48권 8에 실린 백제인은 3명²⁾인데 그중 한 명이 도미라는 점, 이 부분이 설화로 창작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설화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대비적인 인간의 언어행위로써 나타나는 표현가치, 감정가치, 나아가서는 진실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양식³⁾이며, 그 장르적 특성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천성과 여백성은 설화의 현대적 변용을 가능케 한 동인이기도 하다. 설화는 그 특성상 텍스트 자체에 여백이 존재하고 그 여백 때문에 텍스트의 변천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며⁴⁾, 당대 문화를 반영한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내포하기도 한다.

1)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와는 달리 正史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전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사실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미’ 편은 인물들의 생존 연대와 구체적 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채 사건 전개만 간략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실존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백제시대에 구비전승 되거나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던 설화를 김부식이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로 축약해서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기록일지라도 설화라고 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다른 두 명은 ‘흑치상지’와 ‘계백’이다.

3) 강성천, 「설화의 현대적 변용—소설화의 방법과 비극정신에 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11, 동악어문학회, 1978, 284쪽.

4) <도미설화>가 허구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도미 처의 숭고한 아름다움이라는 미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이 설화가 높은 문학적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점이 <도미설화>의 현대적 변용을 가능케 한 이유일 것이다.

<도미설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진행된 논의에는 장르적 성격과 전승양상 및 열녀 담론에 대한 연구⁵⁾, 다른 장르로의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⁶⁾, 문화기호학적 연구⁷⁾ 등이 있다. 하지만 <도미설화>의 현대적 수용을 구체적 방법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원 텍스트와 변용된 텍스트의 간극을 찾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생된 작품의 의미를 밝히는 데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도미설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소설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와 최인호의 『몽유도원도』⁸⁾를 프레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 작품들이 지닌 사회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세 작품의 서사 구조를 파악해 설화의 구조적 확장과 변모 과정을 살핀 후, 이

-
- 5)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장덕순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동화출판사, 1981, 91-112쪽.
 권오성,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 17쪽.
 조제호, 『<삼국사기> 소재 『도미설화』의 구비 전승과 변이에 대한 연구-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논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71-303쪽.
 임형택,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9-29쪽.
 박용식, 『삼국시대의 설화 연구와 소설사적 문제-전설과 민담을 중심으로』,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385-403쪽.
 최운식,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 『고문화』 4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6, 151-170쪽.
 이준희, 『도미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6) 장덕순,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 『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박상란, 『도미설화, 그 전승의 맥락』, 『우리역사인물전승 1』, 집문당, 1994, 309-330쪽.
 홍현아, 『도미설화의 작품세계와 현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7) 한윤경, 『도미설화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8) <도미설화>는 『아랑의 정조』(『문장』, 1940. 12.)로 소설화가 시도된 뒤, 1995년 『몽유도원도』라는 소설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를 통해 드러나는 소설적 특성과 주제의식을 프레임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당대 민중의 시각을 작가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프레임 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프레임이 개인 또는 당대 사회의 생각을 주도하는 해석과 판단의 지배적인 준거 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레임은 사고의 틀이자 생각의 출발지점인 시각이며, 우리 머릿속 눈에 씌워져 있는 안경이자 바라보는 창”⁹⁾이기 때문이다. <도미설화>가 시대를 달리하며 꾸준히 민중에게 읽히고 소설로 재탄생한 배경에는, <도미설화>가 당대 민중들이 형성했던 다양한 시각을 담은 틀이기도 하고, 반대로 작품을 통해 당대 민중들에게 프레임을 제시하여 사회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프레임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작품이 탄생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민중들의 시각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작품을 보다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2. 빈칸 채우기-대립적 서사 구조의 강화와 욕망의 삼각형 구조로의 변모

설화는 원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부차적인 구조의 요소들이 다른 모티브와 에피소드를 새로이 만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파생·복합·동화의 작용으로 변천한다.¹⁰⁾ 변천성은 설화의 존재양식의 특징이며, 설화의 소설화를 촉진하고 창작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설화가 문학적으로 완전무결하지 못한 여백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미설화>

9) 이동호·김원용,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2, 6쪽.

10) 강성천, 앞의 논문, 284쪽.

도 그 자체가 서사적이고, 함축적이며, 축약적으로 장면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백이 또 다른 소설적 장치의 설정을 가능케 하고 인물의 개성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 장에서는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 『몽유도원도』에 나타난 서사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여 설화의 여백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겠다.

A. <도미설화>의 서사 단락을 분석하여 단락소¹¹⁾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도미의 처는 아름답고 정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금기)
- ② 도미는 아내의 정절을 믿고, 개루왕(蓋婁王)은 여자의 정절을 불신한다.(결핍)
- ③ 개루왕과 도미는 내기를 한다.(과제)
- ④ 개루왕은 신하를 자신처럼 꾸며서 도미의 아내를 시험하지만 실패한다.(결핍 제거, 과제 성취, 기만)
- ⑤ 개루왕은 도미의 두 눈을 뽑고 배에 태워 보낸다.(위반)
- ⑥ 개루왕은 도미 아내를 입궁시켜 범하려 하지만 도미 아내는 도망친다.(결핍의 제거, 기만, 기만의 성공)
- ⑦ 도미 아내는 도미와 만나 고구려로 떠난다.(기만의 성공, 탈출 성공)

위에서 볼 수 있듯, 인물의 대립과 갈등을 기본 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도미설화>의 서사는 현대소설로의 변형을 가능케 하는 틀을 지니고 있다. 서사 단락 A에서 ①, ②는 발단, ③④⑤⑥은 경과, ⑦은 결말로 볼

11) 순차적 구조 방법은 프로프(Vladimir Propp)에 의해 개척되고 던테스(Alan Dundes)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편으로 나누어 직선상의 연속적 구조로 파악하려는 것이다(Alan Dundes, "Structural Typology in American Indian Folktale", *The Study of Folklore*, Prentice Hall, 1965, pp. 206-215.).

수 있으며 이러한 서사적 구성은 <도미설화>가 소설 양식에 접근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락소를 분석하면, 이 작품은 ‘결핍-과제-과제의 성취-결핍의 제거-금지-위반-결과-결과로부터의 탈출시도’의 유형을 보인다.¹²⁾ 이는 ‘금지-결핍’, ‘기만-기만의 성공’으로 축약되는데, 이로써 알 수 있듯 이 작품의 표층에 나타나는 서사 구조는 대립적이다. 전반부에는 도미와 개루왕의 대립이 ‘내기’라는 상황으로, 후반부에는 도미 아내와 개루왕의 대립이 ‘속고 속이기’로 전면화되고 있다. 초점을 어디에 두든, ‘도미/도미 아내’와 ‘왕’이 서로 대립적 위치에 놓임으로써 여러 평자들의 말처럼 관탈민녀형 설화의 대표적 서사를 띠게 되며 ‘지배-피지배’ 관계라는 대립적 구조가 명확해진다.¹³⁾ 이러한 구도에서 지배자는 언제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개루왕은 일방적으로 도미 부부의 평화를 깨뜨리며, 도미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결과를 뒤집고 도미를 벌한다. 이는 <도미설화>가 불평등한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가 공고했던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대결에서 패배한 사람은 개루왕이지만, 불행해지는 것은 오히려 도미 부부이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전복되지 않고 지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를 보임으로써, 지배와 피지배의 위계 관계가 쉽게 전복되지 않는다는 문화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도미설화>는 신화부터 설화를 거쳐 고소설까지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적 구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도미의 성장 과정이나 부부의 사랑, 결혼관계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내용이 전개된다. 또한 도미 아내의 미모와 정절이 왕에게 알려져 도미

12) 각 인물에 따른 단락소를 분석하면, 도미의 입장에서는 ‘과제→과제의 성취→탈출→탈출의 성공’으로, 도미 아내의 입장에서는 ‘기만→기만의 성공→탈출→탈출의 성공’으로, 개루왕의 입장에서는 ‘결핍→과제 제시→위반→결핍 제거 실패’로 나타낼 수 있다.

13) <도미설화>의 표층 서사는 관탈민녀라는 문제 상황을 도미 아내가 극복하고 도미에 대한 변함없는 정절을 지킨다는 점에서 ‘열’의 윤리를 강조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와 내기에 들게 된 경과와 어떤 계략에 의해 내기가 시작되었는지 과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모든 전개가 축약되어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도미설화>는 그 구성에 상당한 ‘빈칸’이 드러난다. 이러한 빈칸은 현대 소설로의 변형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

B. 『아랑의 정조』의 서사 단락을 분석하여 단락소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은 아름답고 도미와 아랑 부부는 사이가 좋다.
- ② 도미는 아랑의 아름다움이 불안하다.
- ③ a 개루왕은 아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자를 보내 부르지만 거절당한다.
b 개루왕은 도미를 불러 아랑의 정조에 대해 내기를 걸고 도미의 집으로 향한다.
- ④ 개루왕은 내기에 지고 도미의 눈을 뽑아 내쫓는다.
- ⑤ 개루왕은 아랑을 불러들여 범하려 하지만 아랑은 왕을 속이고 도망친다.
- ⑥ 아랑은 도미와 재회하고 고구려로 들어간다.

<도미설화>의 소설화 작업은 본래의 설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재해석을 통해서 설화의 사실성을 ‘허구적 진실’이라는, 보다 사실적인 세계로 변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 과정에서 소설은 설화에 비해 길어지게 되고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이 보다 구체화된다. 그러나 『아랑의 정조』의 서사 구조는 위에서 보듯, <도미설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고 속이기’와 ‘기만-기만의 성공’, ‘금지와 위반’,

14) 송백현, 『<아랑의 정조> 일고-『도미처』설화와의 비교적 검토』, 『동천 조건상 선생 고회기념논총』, 개신어문학회, 형설출판사, 1986, 480쪽.

‘결핍과 욕망’이 ‘지배자-피지배자’의 대립적 서사 구조 속에서 그대로 유지된 채 변형되고 있다. 하지만, <도미설화>보다 그 대립적 구조가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도미와 아랑 사이의 사랑이 더 강조되어 있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아랑에 대해 느끼는 도미의 불안감이 전면화된다. 이는 개루왕의 결핍과 욕망을 대립적으로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왕과의 내기가 도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위의 서사 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A-④에서는 근신에게 왕의 옷을 입혀 도미의 집에 보내어 그 집에서 도미의 아내를 유혹했는데, B-③ b에서는 왕이 친히 도미의 집에 가서 묵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루왕의 욕망이 더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아랑과 개루왕의 속고 속이기의 대립도 그만큼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개루왕의 욕망과 결핍이 강할수록 도미에게 행하는 개루왕의 핍박 역시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도미설화>에서는 도미의 처가 왕을 모시지 않고 婢子를 대신 들여보냈는데 『아랑의 정조』에서는 ‘부전’이라는 이웃집의 젊은 과부를 들여보낸다. 『삼국사기』에는 도미의 신분이 ‘小民’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를 거느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화는 『아랑의 정조』에서 도미의 신분을 목수로 설정한 후 비자 대신 옆집 과부를 아랑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도미와 개루왕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기 위해 도미가 당시 궁궐 건축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제목에서 보듯이 아랑을 주인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랑에 대한 묘사가 원 텍스트보다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아랑의 묘사는 설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아랑의 성격을 표현하지만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 과장된 모습을 보인다. 아랑의 미모와 품성을 완벽한 경지로

승화시킨 것은 개로왕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대립 구조가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역사소설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C. 『몽유도원도』의 서사 단락을 분석하여 단락소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개로왕(여경)은 꿈에서 미인을 만나고, 현실에서 미인을 찾지만 실패한다.
- ② 개로왕은 아랑의 소문을 듣는다.
- ③ a 왕(여경)은 사냥을 나가 살을 맞는 연극을 하고 아랑은 왕을 살린다.
b 왕은 아랑의 정조를 불신하며 도미를 불러 아랑의 정조를 걸고 바둑 내기를 한다.
- ④ a 왕은 향실을 보내 아랑을 유혹하지만 아랑의 꾀에 속아 신자와 하루를 지낸다.
b 개로왕은 분노하여 다시 내기를 한다.
- ⑤ a 왕은 아랑을 또 유혹하지만 실패하며, 계집종을 죽이고 도미를 눈멀게 한다.
b 왕은 도미를 배 태워 보내고 아랑은 마음을 바꾸려 한다.
- ⑥ a 아랑은 여경을 위해 몸을 씻던 중 배에 태워 떠내려 오는 도미를 만난다.
b 아랑은 자신의 얼굴을 갈대로 상처 낸 뒤 도미와 함께 고구려로 떠나 걸인으로 산다.
- ⑦ a 아랑과 도미는 죽어서 신선이 된다.
b 백제의 왕도에 일식이 있을 후 개로왕은 전사한다.

『몽유도원도』는 꿈의 모티프를 끌어들어서 소설 공간을 넓히고자 했으며,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해석을 덧붙인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전 작품에서 두드러졌던 대립적 서사 구조가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구조로 변화되어 기존 텍스트의 여백을 더 확실하게 채운다. 꿈과 현실의 대립,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구조는 그대로이지만, 꿈에 나타난 미인을 현실에서 찾으려는 여경(개로왕)의 욕망이 현실에서 전면화되면서 ‘주체-중개자-대상’이라는 삼각형 구조¹⁵⁾로 변모된다. 따라서 꿈이라는 장치는 미인을 추구하는 여경의 욕망을 현실의 아랑으로 대체시키며, 미인에 대한 여경의 집착과 실패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여경이 보이는 욕망의 특징은 중개자인 아랑과 미인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자와 대상은, 욕망의 주체인 여경의 입장에서 볼 때 상호교환적인 관계이며 대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아랑을 취하고자 하는 여경의 욕망과 좌절은 결국 미인을 욕망하는 이상의 좌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서사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개로왕이 초점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도미설화> 설화의 소설화가 이미 시도된 바 있는 『아랑의 정조』를 보다 낮설게 하는 것이며, 현대적 시각에서 개로왕을 단순한 지배자 및 억압자가 아닌, 욕망을 추구하는 보다 현실적인 인물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위 서사 구조에서 C-①은 개로왕이 아랑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꿈에서 보고 못 잊는 여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내고, C-③ b는 도미의 신분을 멸망한 왕국의 ‘읍차’로 설정하여 고귀함을 부여하며 개로왕과 도미

15) 르네 지라르의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욕망의 삼각형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소설의 주인공들이 갖는 욕망은 우선 욕망하는 주체가 있고 주체에 의하여 욕망되는 대상이 존재한다. 그런데 주체는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서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제3자에 의한 충동이 있다고 본다. 이 제3자를 그는 욕망의 중개자라고 부른다. 즉, 주체는 중개자에 의해 대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옮김, 한길사, 2001, 24-35쪽 참조).

의 내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C-③ a와 C-⑤ b는 아랑을 피기 위한 수단과, 개로왕과 아랑의 심리변화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C-⑥ b에 서는 아랑이 왕에게서 도망쳐 도미와 재회하고 고구려로 떠난 이후의 모습(결인과 신선이 되는 과정)까지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몽유도원도』는 사건 전개가 평면적이고 순차적이었던 기존 작품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체적으로 구성이 치밀해졌고 꿈의 구조를 통해 설화적 세계를 현실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 또한 개로왕의 욕망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은 설화의 인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결말 부분에 아랑과 도미가 죽어서 신선이 된다는 설정과 개로왕의 타락으로 인해 일식이 있는 후 그가 전사(戰死)한다는 설정은 현실적이기 못하고 오히려 설화적 세계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개로왕이 지닌 현실적 욕망의 덧없음이라는 주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면에 드러난 서사 구조의 특징을 살핀 결과, <도미설화>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구조를 통해 ‘도미 부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아랑의 정조』는 이러한 대립 구조가 강화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두드러지며, 제목에서 나타나듯 ‘아랑의 정조와 절개’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몽유도원도』는 꿈과 현실, 지배와 피지배라는 대립 구조를 기본 서사로 한 후, ‘꿈’을 통해 ‘여경, 미인, 아랑’을 ‘주체, 대상, 중개자’로 하는 욕망의 삼각형 구조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랑과 탐욕, 이상과 현실의 대립, 욕망의 좌절이라는 폭넓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확장된 것이다.

3. 프레임을 통해 바라본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

설화는 오랜 기간 전승되고 소설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이 탄생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민중들의 시각을 드러내는데, 이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¹⁶⁾이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고의 틀이기도 하고 일화적 지식이나 전형적 기억 등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뜻을 형성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품’ 또는 ‘문학’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당대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고프만 역시 프레임을 ‘해석의 설계’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개인들이나 단체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인지하고, 위치하게 하고, 알아보고, 이름 짓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프레임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을 조직화하며 조직된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프레임을 세상을 보는 틀로 인식하고, 여론과 텍스트 간 상호작용의 결과가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 방법을 적용한다.

1) <도미설화>-백제 민중의 전복 프레임

<도미설화>의 경우,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이후, 조선시대에는 《삼강행실도》 ‘烈女’ 편에 실린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작품에 당대인의 프레임이 반영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¹⁷⁾ 이런 측면에서 <도

16) 프레임 이론은 1974년 어빙 고프만의 『프레임 분석』에서 사회학적으로 태생된 것으로, 대니얼 카너먼에 의해 심리학, 경제학 분야에 적용되었고, 2004년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를 통해 정치학적으로 퍼지면서 대중화되었다. 프레임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프레임, 프레임링 등은 동일한 사회 현상을 지칭하지만 세부적으로 각각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오랫동안 언론의 프레임 또는 프레임링 현상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지만, 각자의 주장에 맞춰 규정했기 때문에 이 현상을 포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일된 정의는 사실상 없었다. 그 덕분에 프레임에 대한 논의는 여러 영역에서 활성화되었으며, 이제는 점차 몇 개의 영역으로 수렴되고 있는 중이다. 엔트먼은 “프레임은 지각된 현실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에서 현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해결 방안 제시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Entman, R. M. “Framing :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p. 52).

미설화>가 창작된 백제 시대의 프레임을 통해 이 작품을 해석하는 일 역시 가능할 것이다. 현대는 언론이 프레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당시에는 작품이 언론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접근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작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도미설화>는 제목에서부터 ‘도미’라는 인물이 초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화에는 도미의 신분¹⁸⁾이 단순하게 소민(小民)으로 나타난다. 소민은 조선시대 양반에 반대되는 상민(常民)을 이르던 말이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한 시기가 고려시대이므로 여기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으나 ‘작고 천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설화를 창작한 주체들은 도미라는 이름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도미의 한자를 풀어 설명하면, ‘都(도) = 도읍, 彌(미) = 두루, 널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도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도읍에 두루 널리 퍼져 있는’이라는 뜻이 되므로, ‘小民’과 연결하면, 결국 도미의 신분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도미의 신분과 직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은 도미가 피지배자임을 명백히 강조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개루왕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도미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고 도미와 경쟁하는 구도를 보이

17) 조선 세종이 충신·효자·열녀를 선정하여 그 행적을 글로 쓰고 각각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책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다. 이 책의 ‘烈女’ 편에 백제 도미 부인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삼강행실도》에는 6명의 열녀 사례만 소개되고 있는데, 도미 부인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은 <도미설화>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미설화>가 수록된 《삼강행실도》의 초간본이나 산정본의 원문도 도미 부인을 소개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결국 《삼국사기》의 <도미설화>는 《삼강행실도》를 거치면서 열녀의 전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烈’은 보통, 여성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윤리로 읽힌다. 이는 <도미설화> 텍스트가 당시의 정치·사회적 구조를 강화시키는 프레임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삼국사기》 열전에는 도미의 신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雖編戶小民 而頗知義理(호적에 편입된 하찮은 백성이었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다.)”

는데, 도미 아내의 선택은 개루왕이 아니라 도미라는 점에서 개루왕의 결핍은 해소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개루왕과 도미의 대결에서 도미가 승리했다는 것은 이 작품이 ‘도미처 설화’가 아닌 ‘도미 설화’인 이유를 짐작케 한다.

문제는 도미가 개루왕과의 내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잃는다는 점이다. 이는 지배자에 의해 피지배자의 수난이라 할 수 있다. 지배자의 위치에 놓인 개루왕은 실제 ‘개로왕(蓋鹵王)’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최래옥은 일본 《서기(書記)》에 백제 개로왕(蓋鹵王)이 즉위 사절로 온 일본 공신 편에 여자를 공진(貢進)했는데 여자 이름은 지진원(池津媛)으로 일본 왕이 행(幸)하려 하매 뜻을 어기고 다른 남자인 석하순(石河楯)과 음(淫)하였으므로 왕이 대로하여 그 부부를 나무에 사지를 묶어 장작불로 화형하여 죽였다는 내용이 있음을 밝히며, 이를 <도미설화>의 굴절 자료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개루왕(蓋婁王)을 ‘개로왕(蓋鹵王)’일 것¹⁹⁾이라 추측하고 있다.

실제 기록에 개로왕은 백제 제21대 왕으로 455년부터 475년까지 재위한 임금으로 나온다.²⁰⁾ 원 텍스트의 맥락과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개루왕을 ‘개로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개루왕이 도미에게 가한 ‘시련-위기’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 즉 프레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신라와 백제, 고구려 간에 한강 유역 찬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때임을 감안한다면, 이 설화가 어떤 의도에서 창작되었는지가 명백해질 것이다. 개로왕은 475년에 거대 토목공

19) 최래옥,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 설화의 연구』, 『한국학논집』 제2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123-152쪽.

20) 김부식, 『삼국사기』, <본기 권 25 개로왕>, “二十一年...王出逃 麗將桀婁等見王下馬拜已 向王面三唾之 乃數其罪 縛送於阿且城下戕之(21년(475년)... 왕이 [성을] 나가 도망가자 고구려의 장수 걸루(桀婁) 등은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고는 그 죄를 꾸짖었다. [그리고] 왕을 포박하여 아차성(阿且城) 아래로 보내 죽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참조

사를 벌인다.²¹⁾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 공사로 인해 엄청난 국고가 탕진되었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 고통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한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조장하는 여론을 형성하였을 것이며, 이는 백제인이 지배자를 인식하는 프레임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배자인 개로왕과 피지배자인 민중들’의 관계는 설화 속 ‘개루왕과 도미의 관계’라는 알레고리로 설정되고, 이 설화가 구전되면서 자연스럽게 개로왕의 실정을 부각하기에 이른 것일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관’이 ‘민’을 탈할 때 ‘민’의 저항을 통해 ‘관’의 시도를 무화하는 것으로 민중의 욕구는 표출된다. 이는 지배자에 대한 저항의식의 발로이며, 지배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루왕과 도미 부부의 갈등에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는 해석자에게 비판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텍스트의 첫 부분에 등장한 도미 부부의 긍정적인 소개는 지배자의 폭정을 더욱 강조하는데, 그러하기에 ‘관탈민녀’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烈’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항해서 지켜야 할 가치로서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 피지배자가 지배자와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는 작품 말미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도미와 도미의 아내가 만나 고구려로 떠난다는 설정은 당시 백제의 민중들이 백제와 고려에 대해 어떤 인식을 드러냈는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프레임이다. 레이코프에 따르면, 프레임은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이다.

<도미설화>가 민중에게 구전되면서 백제의 민중들은 이 언어(텍스

21) 천관우, 『한국의 국가형성』 하, 《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139쪽.

22) KBS 《역사저널, 그날》, 8. 23. 방송 참조.

트)를 통해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다. 도미와 도미 아내가 신라가 아닌 고구려로 갔다는 설정과 고구려 사람들이 도미와 도미의 아내를 보살펴 주었다는 결말을 통해 백제 시대의 가고 고구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것이다. 이는 도미의 아내가 정절을 지키고 고구려로 향하는 시간이 낮이라는 점, 반면 개루왕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도미의 아내를 유혹하고 밤에 몰래 도미 집으로 온다는 배경 설정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미설화>는 백제 민중들이 개로왕의 실정에 대한 여론을 구전되는 텍스트로 만든 것이고, 이 텍스트는 프레임을 형성하여 백제인들이 소망했던 삶과 현실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2) 『아랑의 정조』-일제강점기의 민족정신 프레임

『아랑의 정조』는 제목에서부터 ‘아랑’과 아랑이 지켜야 했던 ‘정조’가 초점화되어 작품이 창작되었던 당시의 시대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조’라는 단어를 제목에 배치한 것부터 작품이 창작되었던 당시 민중들이 형성했던 프레임과 프레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작품을 표층적으로 이해하면, 이 소설이 지배자와 피지배층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랑이 지켜야 했던 정절과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쓴 박종화²³⁾와 그의 역사의식, 작품이 창작된 194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른 각도의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소설이 <도미설화>와 크게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 <도미설

23) 박종화는 1930년 무렵부터 서재에 침거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고전에 몰두한다. 그는 여러 자료와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소설을 창작하는데, 당시 《매일신보》에 『금삼의 피』, 『대춘부』, 『전야』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다. 박종화가 역사소설을 창작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설이 민족정신을 담은 포장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에서 특이한 점은 박종화가 설화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도미의 처에게 ‘아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작품 속 아랑은 미모와 품성으로 온 나라에 이름이 알려지고, 부귀영화보다도 정절과 사랑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슬기로운 여성으로 등장한다. 또한 임기응변적 언행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불가항력의 처지에서도 기지를 발휘하는 지혜로운 여인이기도 하다. 아랑을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한 이유는 아랑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아랑’이 풍기는 이미지에서 자연스럽게 ‘아리랑’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는 박종화가 민족정신을 반영하여 명명한 이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민족의 얼을 찾고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 인간성 탐구를 개조²⁴⁾하려는 그의 문학관이 밑바탕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도미의 시련과 고난보다 ‘아랑’이 ‘개루왕’에게 정조를 빼앗기지 않고 지혜를 써서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도미설화>에서보다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프레임의 관점에서 ‘아랑↔개루왕’의 대결은 우리 민족과 일제의 대립을 알레고리화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1940년이라는 시대적 상황²⁵⁾에서 우리 민족이 형성했던 프

24) 나준호, 『박종화의 역사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7, 54쪽.

25) 1940년부터는 일제치하의 마지막 탄압과 억압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어두운 시대였다. 일제의 황국식민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인적, 물적 착취가 더욱 노골적으로 극심해 지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대부분의 문인들, 특히 문학 활동의 중심을 이루던 문인들은 친일의 성향을 띠기 시작했고, 원했던 원치 않았든 ‘친일문학’이라는 한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의 문단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939년 10월 조선문인협회 결성
- 2) 1940년 2월 창씨제도 시행
- 3) 1940년 3월 사상범 예비구속령
- 4) 1940년 8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 5) 1940년 10월 국민총력연맹 결성
- 6) 1941년 4월 《문장》, 《인문평론》 폐간
- 7) 1941년 12월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

레이미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시기에 1930년대부터 꾸준히 역사소설을 써 왔던 박종화가 민족정신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소설 속 아랑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아랑은 ‘중용의 미’를 가장 완전하게 갖춘 여인으로 그려져 있고 외모의 아름다움에 못지않은 결곡한 내면과 품성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아랑이 개루왕에게 보이는 심리 역시 “아랑은 싸늘하게 노했다, 달빛 속에 새침히 돌아서는 아랑의 태도는 부어내리는 서릿발보다 더 차갑다”와 같은 서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랑이 지닌 절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서술에서 ‘절개=민족정신’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자 했던 박종화의 작가로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도미설화>에서 도미의 처가 보여주었던 도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절개는 박종화에게 소설화 작업을 가능케 하는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레임은 정치·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로 작용²⁶⁾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략적으로 짜인 틀을 제시해 대중의 사고 틀을 먼저 규정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며, 이를 반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프레임을 강화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박종화는, 도미의 아내가 보인 절개의 매서움을 ‘아랑’이라는 인물로 상징화해서 당시 딜레마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

‘아랑’이 초점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도미는 <도미설화>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설화와 달리 도미는 성실성과 아내에 대한 믿음을 제외하면 크게 부각되는 인물이 아니다. 왕 앞에서 아내의 사랑을 자신하고, 내기를 거는 모습에서 젊고 순진한 인물임을 알 수 있으나 사랑을

8) 1942년 9월 조선어학회사건 조작

26) 천관율, 『메시지가 꼬이니, 민심도 꼬이지』, 《시사IN》, 2013. 8. 12.

방해하는 외부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소극적이고 불행한 인물로 그려진다. 따라서 도미는 피해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미설화>에서 도미의 신분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고 직업도 분명하지 않은 데 반해 이 소설에서는 도미의 신분과 직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평민 목수로 도미의 신분을 설정한 것은, 서사의 흐름상 도미를 토목 공사에 종사케 함으로써 개루왕이 도미를 손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개루왕이 도미를 내쫓을 빌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궁궐 공사를 잘못된 책임을 물어 도미를 손쉽게 제거하고, 개루왕의 악행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²⁷⁾

또한 박종화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도미의 직업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도미가 목수라는 신분이기에 개루왕이 펼쳤던 토목 공사에 차출되었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의 직접적인 대결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표면화하면서 심층적으로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민중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도미설화>에 나타나는 개루왕은 인간을 믿지 못하는²⁸⁾ 인간 부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랑의 정조』에서 개루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사를 잘 베풀었으며, 백성의 부세(세금을 매겨서 부과함)를 가볍게 하고, 성과 연못을 잘 가꾸어 바깥 근심을 덜게 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이는 일제가 침략의 한 방법으로 진행한 근대화의 모습을 일부 인

27) 이는 ‘피해자-가해자’의 도식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아울러 설화가 소설화되면서 우연성이나 고정성을 다소 사실적인 상황으로 전개시키고자 한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아랑이 흠쳐온 개루왕의 병부를 보이고 사공을 재촉하여 배 한 척을 얻어 탈출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8) “王曰 凡婦人之德 雖以貞潔爲先 若在幽昏無人之處 誘之以巧言 則能不動心子鮮矣 都彌 對曰 人之情 不可測也 而若臣之妻者 雖死無貳者也.”(《삼국사기》, 열전 제8)

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뒤에 나오는 개루왕의 음탕함을 강조하려는 장치로 보는 게 합당하다.

개루왕은 여색을 탐함으로써 자신을 훌륭한 영웅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루왕이 남편이 있는 아랑을 욕망하고 잘못된 役事를 했다고 도미의 두 눈알을 뽑는 행위는 당연한 일이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의 정당성을 강조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과 맥락이 비슷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랑의 정조』에서는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표면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옳지 못하며, 이럴 경우 약자는 이러한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인식이 이 작품이 추구하는 바일 것이다. 당시 민중이 추구했던 문화적 의미에서 개루왕은 악으로, 아랑과 도미는 선으로 대칭된다. 도미 부부가 개루왕의 시험을 통과하여 함께 사는 것을 선의 승리로 보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 두 작품 모두 도미와 도미의 아내가 고구려로 떠난 이후로 개루왕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랑의 정조』가 당대 민중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프레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개루왕의 비극적 결말을 넣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화가 평범한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 만족하며 사는 도미와 아랑의 모습에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고, 흉포한 지배자인 개루왕을 결국은 패배하는 인물로 그린 이유는,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된 민족의 울분과 저항을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화의 내용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용하여 다른 세계를 구축하려 한 것은, 식민지 치하에서 대중에게 역사적 지식을 제공하고 민족주의 정신을 불어넣으려는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민족정신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상

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던 우리 민족에게 민족주의라는 프레임을 형성하여 다소나마 위로를 전하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의 장을 열어놓고자 하는 정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아랑의 정조』는 역사적 고증이 철저하지 않고, 서사 구조를 설화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인물들이 평면적이고, 소설로의 변용이 오히려 개방적인 설화적 세계를 폐쇄시키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도미와 아랑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사건 전개에 있어 필연성을 붙여 넣기 위해 원 설화에 존재하는 여백을 채워 넣으려는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설화를 먼지 속에 묻어두지 않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3) 『몽유도원도』-1990년대 개인의 욕망 프레임

『몽유도원도』는 최인호가 1995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꿈의 모티프를 끌어들어서 소설 공간을 넓히고자 했으며,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해석을 덧붙인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가 ‘도미’ 혹은 ‘아랑’의 이야기였던 것에 비해 이 작품은 ‘개로왕’이 초점화되면서 ‘사랑과 욕망, 꿈(이상, 환상)과 현실의 대립’으로 구성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 작품이 탄생한 1990년대 문학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개인의 욕망이라 할 수 있으며,²⁹⁾ 그러하기에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들을 승화시키는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는 이념으로 대표되던 1980년대 공동체의 이상을 꿈꾸던 집단적 연대의 고리가 끊어졌고, 이 결과로 개인

29) 이 때문에 에로티시즘, 나르시시즘 등은 1990년대를 규정하는 키워드로 다가온다. 에로티시즘은 욕망의 결핍과 충족의 길항작용을 통해, 나르시시즘은 자아의 위기가자 보호라는 이중성을 통해 이전의 문학을 뒤흔들고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의 내면에 숨어 있던 무의식적 욕망들이 서서히 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인호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여 ‘여경’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몽유도원도』에서는 도미와 아랑이 아니라 여경이 중심인물로 초점화된다. 여경은 꿈속에서 절세의 미인을 만나 평생 동안 사랑하는 꿈을 꾸지만, 현실 속 여경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토로 함께하고 싶은 여성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꿈을 꾀 여경은 꿈속 여인(왕비)과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꿈속의 미인을 현실에서 찾기 위해 화공에게 여인의 화상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여경이라는 인물이 꿈속의 미인을 만나고 그 미인을 현실에서 쟁취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된다. 여기서 미인을 찾으려고 욕망하는 여경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개인적 욕망(돈, 성공, 육체 등)을 알레고리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제목인 ‘무릉도원’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들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듯, 현실에서 꿈속 미인과 똑같은 인물을 쟁취하고 싶다는 여경의 욕망은 헛된 바람이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여경은 전국에서 이 미인과 유사하게 생긴 여성을 데리고 와 하룻밤을 취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여인들이 꿈속의 미인과 전혀 닮지 않았음을 깨닫고 여인들을 죽이는 행동을 반복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의 거듭된 반복이 여경의 욕망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경의 욕망은 중개자를 찾으려는 행위를 통해서도 강화된다. 지라르의 표현에 따르면, 선망³⁰⁾의 감정이 개입되면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여경 역시 꿈속 미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착각은 점점 발전하여 아랑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그 간절함으로 심화되며, 도미와의 바둑 내기, 도미 눈알 뽑기, 아랑 탐하기로 심화되는 것

30) 지라르는 질투(jalousie)나 선망(envie), 원한(haine)은 내면적 간접화의 전통적 명칭이라 하였다(김치수,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198쪽).

이다. 그의 욕망은 이미 환상에 사로 잡혀서 확고해져 있으며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처럼 여경의 욕망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작품이 기존 서사와 특별히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여경이 아랑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여경의 욕망을 부추기는 향실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여경은 아랑이 도미의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을 하는데, 향실은 여러 계락을 써서 아랑과 여경의 만남을 추진한다. 욕망을 지닌 주체를 부추기는 또 다른 주체의 등장은 개인의 욕망이 그 개인의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을 대체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꿈과 현실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여경의 모습은, 현실 속에서 살면서도 늘 이상적인 세계로의 탈주(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나은 육체)를 꿈꾸는 현대인의 욕망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몽유도원도』에서 도미는 몰락한 왕국의 후손이며 마을의 읍차인 농사꾼으로 등장하는데, 바둑과 사냥에 능하며 피리를 잘 부는 등 신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도미의 신분이 고귀하게 설정된 이유는 아랑의 사랑을 놓고 벌이는 도미와 개로왕의 대결이 서로 대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의도로 보인다.

‘아랑’이라는 인물은 먼저 소설화가 시도되었던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에서 그대로 이름을 따왔는데, 세 작품 중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권력자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끝내 남편에 대한 지조를 지키고, 맹인이 된 남편을 보살피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여인으로 등장한다. 사랑을 쟁취하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랑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유교적 이념을 고수하는 고전적 여인상에서 탈피하여 현대 여성의 면모, 자신의 사랑에 충실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이 가미되어 보다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또한 자신의 미모가 여경의 욕망을 부추긴 결과로 도미의 눈이 멀게 되었다는 판단을 한 후, 즉 불행의

원인이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댈으로써 도미가 처한 상황과 같은 상징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도미와 같은 상황(‘눈이 뚱 = 얼굴이 못 생겨짐’)에 이르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현실적 욕망을 초월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안건의 몽유도원도³¹⁾에서 본뜬 소설 제목처럼 이 작품은 결국 욕망의 좌절과 덧없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주제는 환상성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몽유도원도』는 꿈과 현실이라는 대립적 세계를 통해 환상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환상성은 현실에서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³²⁾ 특히, 작품 말미에서 도미와 아랑이 타고 떠나는 ‘조각배’와 이들이 지향하는 ‘천성도’는 피리 소리와 어울려 현실을 뛰어넘어 ‘욕망의 무상,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³³⁾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메마른 눈물샘을 자극

31)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세종 29년(1447) 음력 4월 20일에 꿈속에서 桃源을 여행하고 그 속에서 본 바를 안건에게 설명해 준 뒤 그리게 한 것으로 3일 만인 4월 23일에 완성을 본 것이다(안휘준, 『안건과 몽유도원도』, 사회평론, 2009, 151쪽).

32) 『몽유도원도』는 환상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환상문학은 결여된 것, 잃어버린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문학적인 구속이나 제약에 의해 결여된 것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작가와 독자에 의해 욕망이 말하여지고 또한 대리적으로 경험됨으로써 그것은 추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대립을 보이는 텍스트에서 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그림자일 수 있고, 이러한 그림자를 의식의 밝은 부분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 환상문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환상문학은 단순한 도피 문학이 아니며 현실 지향적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송효섭, 『김현감호의 환상적 주제』, 『설화연구』, 태학사, 1998, 570쪽).

33) 최인호는 소설 말미에 “낮잠의 짧은 꿈속에서 만났던 몽유의 여인, 그 여인을 현실세계 속에서 찾으려 했던 여경,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 개로왕, 그를 한갓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우리들의 인생이란 한갓 꿈속에서 본 도원경을 현실에서 찾기 위해 해매는 몽유병의 꿈 놀이가 아닐 것인가.”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현실이 곧 꿈일 수 있으며 따라서 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진실하고 슬픈 사랑이야기의 필요를 <도미설화>를 불러낸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작가 또한 서문에서 이 작품을 “피처럼 절실한 사랑 노래”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이 지닌 욕망의 덧없음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도미설화> 현대적으로 수용한 소설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와 최인호의 『몽유도원도』를 프레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왜 <도미설화>가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현대에 <도미설화>의 재등장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설화의 소설화 과정이라는 문학적 증명뿐만 아니라 당대와 현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작품의 서사 구조를 파악해 설화의 구조적 확장장과 변모 과정을 살폈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소설적 특성과 주제의식을 프레임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당대 민중의 시각을 작가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모습을 분석해 보았다.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프레임 이론을 적용한 이유는 프레임이 개인의 생각을 주도하는 해석과 판단의 지배적인 준거 틀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작품이 탄생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민중들의 시각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도미설화>의 빈칸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표층에 드러난 서사 구조의 특징을 살폈다. 그 결과 <도미설화>는 도미와 개루왕으로 대변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구조를, 『아랑의 정조』는 아랑과 개루왕의 대립과 도미와 개루왕의 대립을 강화하는 구조로, 『몽유도

원도』는 꿈과 현실의 대립 구조를 기반으로, ‘미인, 여경, 아랑’을 ‘대상, 주체, 매개’로 연결한 욕망의 삼각 구조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미설화>는 그 구성에 상당한 ‘빈칸’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빈칸은 현대소설로의 변형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도미설화>의 소설화 작업은 본래의 설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재해석을 통해서 설화의 사실성을 ‘허구적 진실’이라는, 보다 사실적인 세계로 변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프레임을 통해 바라본 인물과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도미설화>는 백제 민중의 전복 프레임을, 『아랑의 정조』는 일제강점기의 절개 프레임을, 『몽유도원도』는 1990년대의 욕망 프레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미설화>는 창작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백제인의 가치관과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프레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 프레임을 통해 백제인들의 삶과 시대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민중들은 개루왕의 실정에 대한 여론을 구전되는 텍스트로 만들었으며 도미 부부가 백제를 떠나 고구려를 향했다는 공간 설정을 통해 백제 시대의 가고 고구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것이다.

『아랑의 정조』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요구되었던 민족정신의 발현이라는 프레임을 드러낸 작품이다. 박종화는 ‘아랑’의 매서움과 절개를 통해 딜레마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장을 마련했다고 보인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 민족에게 민족정신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여 다소나마 위로를 전하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의 장을 열어놓고자 하는 작가 정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몽유도원도』는 1990년대 개인의 욕망이 관통하는 프레임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인호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 다른 무엇보다

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사회적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여 이를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여경이 보이는 욕망과 환상으로 재탄생시켰다. 꿈과 현실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여경의 모습은, 현실 속에서 살면서도 늘 이상적인 세계로의 탈주를 꿈꾸는 현대인의 욕망을 상징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미설화>는 백제인의 가치관과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프레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며, 『아랑의 정조』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정신을, 『몽유도원도』는 1990년대 거대담론이 사라진 시기에 개인의 욕망이 관통하는 당대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설화의 여백성과 변천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도미설화>는, 그것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작품을 창작한 주체의 가치와 시대의 프레임이 반영되어 사회·문화적 의미를 더욱 풍부히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미설화> 다시 쓰기는 비단 문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예술 매체, 영상, 음악, 미술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도미설화>의 소설화 문제만 다루었지만, 희곡과 오페라로의 변용도 함께 살피는 작업을 통해 설화의 현대적 수용이 소설을 거쳐 다른 예술 장르로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초 자료

- 김부식, (譯註) 三國史記 : 國譯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박종화, 『아랑의 정조』, 신한국문학전집 4 박종화 선집, 어문각, 1970.
최인호, 『몽유도원도』, 청아출판사, 1996.

단행본 및 논문

- 강성천, 『설화의 현대적 변용—소설화의 방법과 비극정신에 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11, 동악어문학회, 1978, 281-324쪽.
권오성,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21쪽.
김동욱, 『춘향전 근원설화고』, 『고전소설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정음사, 1979, 332-358쪽.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 17쪽.
김치수,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198쪽.
나준호, 『박종화의 역사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7, 54쪽.
박상란, 『도미설화, 그 전승의 맥락』, 『우리역사인물전승 1』, 집문당, 1994, 309-330쪽.
박용식, 『삼국시대의 설화 연구와 소설사적 문제-전설과 민담을 중심으로』,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385-403쪽.
송백현, 『〈아랑의 정조〉 일고-「도미처」설화와의 비교적 검토』, 『동천조건설 선생 고회기념논총』, 개신어문학회, 형설출판사, 1986, 479-500쪽.
송효섭, 『김현감호의 환상적 주제』, 『설화연구』, 태학사, 1998, 570쪽.
안휘준, 『안전과 몽유도원도』, 사회평론, 2009, 151쪽.

- 이동호·김원용,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2, 6쪽.
- 이준희, 「도미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72쪽.
- 임형택,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성」,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9-29쪽.
- 장덕순,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 『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33-50쪽.
- 조제호, 「<삼국사기> 소재 「도미설화」의 구비 전승과 변이에 대한 연구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논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71-303쪽.
- 천관울, 「메시지가 꼬이니, 민심도 꼬이지」, 《시사IN》, 2013. 8. 12.
-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장덕순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동화출판사, 1981, 91-112쪽.
- 최운식,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 『고문화』 4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6, 151-170쪽.
- 한윤경, 「도미설화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73쪽.
- 홍현아, 「도미설화의 작품세계와 현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1-74쪽.
- 지라르, 르네,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옮김, 한길사, 2001, 24-35쪽.
- Dundes, Alan, "Structural Typology in American Indian Folktale", The Study of Folklore, Prentice Hall, 1965, pp. 206-215.
- R. M., Entman, "Framing :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p. 52.

<Abstract>

Modern Transformation of “The Tale of Do-Mi” Seen from Frames

Kim, Min-Ok

This study is a trial to analyze 『The Chaste Woman, A-Rang』 of Park Jong-Hwa and 『Mongyudowondo』 of Choi In-Ho as novels that 『The Tale of Do-Mi』 was accepted modernly. In this paper, firstly, grasping narrative structures of the literary works, structural expansion and transfiguration courses were examined. Through them, from comprehending novelistic properties and thematic consciousness in the view of frames, specific looks of how the writers reflected public viewpoints at those times were analyzed. The reason why the frame theory as an important method to interpret literary works is that frames act as Dominant reference standards in interpretation and judgment which lead personal thoughts. And, it is because the theory can be a method to closely look into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s and visions of general people at the times when the works were created.

In chapter 2, to find out how blank spaces of 『The Tale of Do-Mi』 are filled,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structures of the literary works which were exposed in the surface layer were examined. At the result, their structures were transformed, such as conflict construction between rulers and subordinates in 『The Tale of Do-Mi』, conflict between A-Rang and King Gae-Ru and structure to strengthen the conflict in 『The Chaste Woman, A-Rang』, conflict

structure between dreams and reality in 『Mongyudowondo』, and triangle structure of desire that ‘Beauty, Yeo-Gyeong, and A-Rang’ are connected as ‘object, subject, and mediation’. There are considerable ‘blanks’ in the construction of 『The Tale of Do-Mi』. The blanks made transfiguration into modern novels easier. Fictionalization of 『The Tale of Do-Mi』 can be said to be transformed into a more realistic world rather than to say that realism of tales is ‘fictional truth’ through reinterpretation of various elements which compose intrinsic tales.

In chapter 3, characters that are seen from frames and also aspects of transformation of subject consciousness were examined. From the result, it could be known that 『The Tale of Do-Mi』 mirror as frame of overthrow by general people of the Baekje Dynasty, 『The Chaste Woman, A-Rang』 reflects a frame of constanc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ongyudowondo』 mirror as frame of desire in the 1990s. 『The Tale of Do-Mi』 faithfully played the role of the frame that values of people of the Baekje Dynasty and situations of the time are exposed. Through the frame, it can be known that the tale functioned as checking life and awareness of people of Baekje. General people of Baekje made public opinion against maladministration of King Gae-Ru the texturally transmitted. Via space setting that Do-Mi and his wife left the Baekje Dynasty for the Goguryeo Dynasty, a frame that the time of Baekje goes and the time of Goguryeo comes was formed.

『The Chaste Woman, A-Rang』 is a work to expose a frame of revelation of racial spirit which was demanded for Korean peopl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Jong-Hwa seemed to prepare a

place of deep introspection for Korean people through poignant actions and constancy of 'A-Rang' about what life the people in a dilemma should head for. It can be fruit of spirit of the writer who tried to offer condolence and open a place of keen interpretation to Korean people against the sad reality by forming a frame called nationalism in the colonial situation.

『Mongyudowondo』 can be a work to reflect a frame that personal desire penetrated in the 1990s. Choi In-Ho captured social change that unconscious desire was rising as more important worth than anything else. And, he recognized it as a frame and recreated it into desire and illusion that Yeo-Gyeong showed. Looks of Yeo-Gyeong who did not distinguish dreams from reality can be a frame to symbolize desires of modern people dreaming of escaping into an ideal world although they live in reality.

Key Words : The Tale of Do-Mi, The Chaste Woman A-Rang, Mongyudowondo, Frame, Blanks, The narrative structures, Conflict construction, Triangle structure of desire, Overthrow, Constancy, Desire

■ 논문접수 : 2016년 7월 15일

■ 심사완료 : 2016년 8월 2일

■ 게재 확정 : 2016년 8월 16일